



KIA 투수 팻딘 상대가 아닌 불운과 싸운다

8번 등판 평균자책점 3.83 팀내 2위·전체 10위 '호투' 꼬이는 불펜·득점 불균형 '불운한 조연'... 시즌 2승 머물러 오늘 넥센전 선발 출전 '팀 승리에 기여하고 싶다'



‘불운한 조연’ 팻딘이 이번에는 ‘주인공’이 될까? KIA 타이거즈 팻딘이 17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리는 넥센 히어로즈와의 경기에 선발로 나선다. 시즌 9번째 등판이지만 팻딘의 승수는 2승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와는 다른 출발에도 승수 페이스는 2017시즌과 똑같다. 팻딘은 시즌 첫 등판이었던 3월 27일 삼성과의 홈경기에서 6.1이닝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투수가 됐다. 지난해 첫 등판이자 KBO리그 데뷔전이었던 삼성 원정에서 9회 7실점을 한 불펜 탓에 승리를 날렸던 것과는 다른 시작이었다. 지난 시즌 첫 등판에서 “팀이 이겼으니 됐다”며 웃었던 팻딘은 이제 4월 8일 한화를 상대로 한 두 번째 등판에서도 불펜의 불운 세이브 쇼를 지켜보면서 다음을 기약했다. 세 번째 등판이었던 4월 14일 넥센 홈경기에서 9이닝을 다 책임진 끝에 3-2로 간신히 첫 승에 성공했고, 나지완의 만루홈런이 터진 4월 27일 삼성 홈경기에서 2승을 거둔 뒤 5월 17일이 되어야 시

즌 3승을 기록했다. 올 시즌에는 첫 등판에서 승리투수가 됐지만 승리 가뭄은 그대로다. 4월 22일 두산 원정에서 2승을 올린 이후 세 번의 등판에서 승 없이 1패만 기록했다. 기회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그는 10일 두산 홈경기에서 5-3으로 앞선 7회 2사까지 마운드를 지켰다. 하지만 이날 주인공은 팻딘이 아닌 연장 11회 승부에서 끝내기 안타를 터트린 안치홍이었다. ‘불운한 조연’이 됐지만 팻딘은 “팀이 이겼으니 괜찮다. 놀라운 경기를 봤다. 안치홍이 정말 좋은 경기를 해줬다”며 특유의 환한 미소를 지었다. 팻딘이 나오면 이상하게 꼬이는 불펜과 득점 불균형이 여전하다. 4월 8일 넥센 홈경기서 팻딘은 2-1로 앞선 7회 1사 2루에서 94개의 공을 던지고 마운드를 내려왔다. 하지만 이어 나온 김운동이 첫타자 김하성에게 역전 투런을 맞았다. 다행히 팀은 4-3 승리를 거뒀다. 4월 17일 LG 홈경기에서는 6이닝 3실점(2자책)에서 그의 역할이 끝났고, 이번에는 김운동과 임창용이 7-8회를 무실점으로 막아줬다. 하지만 마지막에 김세현의

블론 세이브가 나왔다. 팀은 김주찬의 끝내기 안타로 5-4 승리를 거뒀고, 승리는 김세현의 몫이었다. 불펜 난조로 날아간 승은 3개. 방망이의 기복도 심하다. 팻딘의 올 시즌 득점 지원은 8.57로 상당히 높다. 그러나 17-0, 14-4로 타선이 폭발한 두 경기가 포함되어 있다. 이 외에 5경기는 1점 차에서 승패가 갈린 살벌리는 승부들이었다. 올 시즌 팻딘은 불안한 헛타를 대신해 양현종과 함께 사실상의 원투펀치 역할을 해주고 있다. 헛타보다 1경기를 덜 치렀지만 똑같이 49.1이닝을 소화했다. 전체 11위로 앞선 10위까지의 선수들은 모두 팻딘보다 1경기 많은 9경기를 치렀다. 평균자책점도 3.83으로 양현종(2.81)에 이어 팀 내 2위, 전체 10위에 랭크됐다. 하지만 18위까지 내려가는 1.46이라는 이닝당 출루허용률과 0.301에 이르는 피안타율이 아쉽다. 올 시즌 병실타를 하나도 유도하지 못하기도 했다. 팻딘은 지난 10일 등판이 끝난 뒤 “팀 승리에 기여를 하고 싶다. 다음 등판이 넥센전인데 내 친구 박병호를 잡고 싶다. 박병호와 친하다”며 웃었다. 아쉽게도 미네소타 시절 한술밥을 먹었던 두 사람의 시즌 두 번째 대결은 박병호의 부상 복구가 늦어지면서 무산됐다. 하지만 팀 승리에 기여를 하겠다는 팻딘의 목표는 남아있다. 팻딘이 초반 불운을 딛고 시즌 3승을 거둬야 이목이 쏠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현충일 6월 6일 KIA- kt 경기 오후 2시로 시간 변경

KIA 타이거즈의 6월 6일 수원 원정 경기 시간이 변경됐다. KBO는 16일 “현충일인 6월 6일 열리는 잠실, 수원, 고척 경기가 지상파 TV 중계로 인한 방송사의 요청으로 오후 5시에 서 2시로 앞당겨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원에서 kt와 상대하는 KIA는 오후 2시에 경기를 시작한다. 잠실(한화 이글스-LG 트윈스), 고척(두산 베어스-넥센 히어로즈) 경기 개시 시간도 오후 5시에서 2시로 앞당겨졌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더블 우승’ 지소연 영국 진출 최고의 시즌



한국 여자축구 대표팀의 ‘간판’ 지소연(27·첼시 레이디스·사진)이 잉글랜드 여자축구 무대에서 소속팀의 ‘더블 우승’에 앞장서며 올해 최고의 시즌을 마무리하고 있다. 지소연은 16일 영국 브리스틀의 스토크 지포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브리스틀 시티와의 잉글랜드 여자슈퍼리그(WSL) 17라운드 원정경기에서 전반 10분 드류 스펜스의 선제 결승골을 어시스트하는 등 풀타임 활약하며 2-0 승리를 주도했다. 지소연의 소속팀 첼시는 17경기 연속 무패 행진으로 한 경기를 남겨두고 WSL 우승을 확정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승이다. 또 지난 6월 2017-2018 여자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우승에 오른 데 이어 “더블 우승”이다. 지소연 역시 지난 2014년 1월 첼시에 입단한 이후 최고의 시즌을 보냈다. 2017-2018 유럽축구연맹(UEFA) 여자 챔피언스리그에서는 4강에서 고배를 들어 3관왕인 ‘트레블’은 아깝게 놓쳤다. 하지만 지소연은 올 시즌 총 24경기를 뛰면서 9골(정규리그 4골·컵대회 5골·UEFA 챔피언스리그 2골)을 터트리며 팀 공격을 주도했다. 특히 지난 3월 29일 몽펠리에(프랑스)와의 UEFA 여자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에서는 페널티킥을 유도해 2-0 승리와 4강 진출의 일등공신이 됐다. 지소연은 “3년 만에 다시 더블 우승을 하게 돼 너무 기쁘다”며 “유럽 챔피언스리그 4강 가고 영국에 오고 나서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 한국에서 응원해 준 모든 분에게 감사드린다”고 우승 소감을 전했다. /연합뉴스

남태희의 ‘알두하일’ AFC 챔스 8강 진출

상대 자책골을 유도한 남태희의 활약을 앞세운 알두하일(카타르)이 2018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8강에 진출했다. 알두하일은 16일 카타르 도하의 알 돌라 빈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열린 AFC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홈경기에서 알아인(아랍에미리트)을 4-1로 물리쳤다. 16강 1차전에서 남태희의 1골1도움 맹활약으로 4-2 대승을 거둔 알아인은 2차전에서도 4골을 쏟아내며 1.2차전 합계 8-3으로 8강행 티켓을 확보했다. 이번 2차전에서도 남태희의 발골이 빛났다. 남태희는 전반 12분 페널티지역 왼쪽 측면을 재빠르게 파고든 뒤 골대 정면을 향해 강하게 왼발 땅볼 크로스를 올렸다. 순간적으로 알아인의 모하메드 아흐메드가 불을 막으려고 발을 뻗었고, 그의 발에 맞은 불은 방향이 꺾이면서 골대로 빨려 들어가 자책골이 됐다. 남태희의 빠른 돌파와 강한 크로스 능력이 선제골의 발판이 됐다. 이른 시간에 기선을 제압한 알두하일은 전반 30분 유세프 알 아라비의 결승골에 이어 후반에 2골을 추가하고 1실점하며 4-2 대승을 마무리했다. 선발출전한 남태희는 후반 30분 교체됐다. 한편, 남태희는 14일 발표된 2018 러시아 월드컵 예비명단 28명에는 포함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연합뉴스



1998년 1월 6일생인 이승우가 최종명단에 들어 러시아 월드컵 본선에 서면 20세 6개월로 역대 네 번째 최연소 출전 선수로 이름을 올린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태극전사 생존경쟁 ... 이승우 월드컵 출전 꿈 이룰까

신태용호 5명은 무조건 탈락 최종 엔트리 마지막 테스트 이창용·주세종·문선민과 경쟁

‘5명은 무조건 탈락이다. 러시아 월드컵 출전 티켓을 잡기 위한 생존경쟁의 막이 오른다.’ 2018 러시아 월드컵을 준비하는 신태용호 소집대상 28명이 오는 21일 오후 12시 서울시청 광장에서 모이는 가운데 월드컵 최종 엔트리(23명)를 추리기 위한 마지막 테스트가 시작된다. 신태용 감독은 다음 달 4일까지 국제축구연맹(FIFA)에 낼 월드컵 최종 엔트리보다 다섯 명 많은 28명을 소집했다. 신태용 감독은 오는 28일 운두라스(오후 8시·대구스타디움), 6월 1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오후 8시·전주월드컵경기장)와 평가전을 치른 후 6월 3일 출국 직전 23명의 최종명단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소집대상에 포함된 28명의 선수는 생존 게임을 통과해야 꿈의 무대인 월드컵 본선에 참가할 수 있다. 5명이 낙마하는 가운데 소집 선수 중 최

연소인 이승우(20·엘라스 베로나)가 러시아 티켓을 차지할지가 최대 관심거리다. 1998년 1월 6일생인 이승우가 최종명단에 들어 러시아 월드컵 본선에 서면 20세 6개월로 역대 네 번째 최연소 출전 선수로 이름을 올린다.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때 19세 2개월의 최연소로 출전한 이통국과 같은 대회의 고종수(당시 19세 8개월), 1986년 멕시코 월드컵 때 김주성(당시 20세 5개월)의 뒤를 잇는 것이다. 성인 대표팀 경력이 전무한 이승우가 선배들과 경쟁에서 살아남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이승우는 미드필더 부문에서 이창용(크리스탈 팰리스), 주세종(아산), 문선민(인천) 등 3명과 생존경쟁을 할 가능성이 크다. 신태용 감독은 골키퍼 3명과 공격수 4명, 미드필더 9명, 수비수 12명을 소집했는데, 지난 3월 유럽 원정 평가전 때 엔트리(골키퍼 3명, 공격수 4명, 미드필더·수비수 각 8명)를 기준으로 미드필더가 8명 안팎으로 정해질 수 있어서다. 미드필더에서는 1명, 수비수에서는 최대 4명이 탈락자가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 /연합뉴스

미드필더 포지션의 ‘캡틴’ 기성용(스완지시티)과 정우영(بت셀 고베), 권창훈(전주), 구자철(아우쿠스부르크), 이재성(전북) 등 5명은 신태용 감독의 신임 속에 러시아행 티켓을 사실상 예약했다. 따라서 이승우는 이창용, 주세종, 문선민과 함께 탈락 후보군에 포함돼 ‘1명의 탈락자’ 피하기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 이창용은 2010년 남아공 대회와 2014년 브라질 대회 등 두 차례 월드컵에 출전한 베테랑이다. 또 A매치 8경기에 출전한 주세종과 최근 국내 K리그에서 몰운도 득점력을 자랑하는 스웨덴 리그 경험자 문선민도 만만찮은 기량을 가졌다. 한편 수비수 부문에서는 최대 4명을 빼낼 공산이 크다. 중앙수비의 핵인 장현수(FC도쿄), 김영권(광저우)과 김민우(상주), 박주호(울산), 이용(전북) 등 5명은 최종 엔트리 경쟁에서 비교적 안정권으로 분류된다. 재할 중인 김진수(전북)와 대표팀에 처음 뵈인 오반석(제주), 권경원(대전), 홍철(상주), 정승현(사간도스), 윤영선(상무), 고요한(서울) 등은 4명 안팎의 탈락자에 들지 않기 위한 피 마리는 경쟁을 이어갈 전망이다. /연합뉴스